

# 군산시, 농업·농촌 지속가능한 발전 탄력

### 농식품부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 조건부 승인 얻어 논 타작물 재배 목표량 50%이상 달성해야 최종 승인

군산시가 수립한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얻었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농식품부 평가단의 3단계(서면-현장-발표평가) 평가를 거쳐 고품질 쌀 유통화사업 및 식량작물공동(늘봄) 경영체 육성(사업다각화)사업 신청자격 부여받았다.

2023년까지 추진하게 될 이번 중장기 계획인 승인은 논 타작물 재배 목표량 50%이상 조건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시는 논 타작물 재배 목표량인 899ha의 50%인 450ha 이상 논 타작물 재배조건을 이행해 오는 7월까지 최종 승인을 받기로 했다. 식량 산업종합계획은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 식량산업 발전 전략과 생산과 가공, 유통체계화 및 운영 등으로 마련됐다. 이 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는 식량산업 관련 국비지원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군산시는 지역 RPC(미곡종합처리장) 및 DSC(건조 저장시설)를 운영하는 7개 농협과 들녘경영체, 식량작물 대표 조직, 식량관련 부서 실무 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통해 식량생산 및 유통에 대한 역할을 분담했다. 또 행정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 거버넌스

를 구축하고, 행정과 지역농협 및 식량관련 조직체 참여로 계획수립 과정에서 운영업체 없이 계획을 수립해 예산 절감 효과도 이뤘다. 김병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식량산업종합계획 최종 승인 조건인 논 타작물 재배 목표량을 달성함으로써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최종 승인받아 지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폴란드 크라코프에서 열린 세계유산도시기구(OWhC) 세계총회에 참석한 정현울(오른쪽 두번째) 익산시장이 총회 관계자로부터 관광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익산시 제공>

## '세계문화유산도시 익산' 홍보 주력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정현울 시장 참석 정책 공유

익산시가 세계문화유산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에 주력하고 있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지난 4일까지 폴란드 크라코프에서 열린 세계유산도시기구(OWhC) 세계총회에 참석해 익산을 알리고 각국 대표단과 관광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세계총회는 세계유산을 보유한 전 세계 93개국 315개 도시들이 참석해 2년마다 개최된다. 총회는 지난 2017년 경주시에 이어 올해 폴란드 크라코프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세계유산과 관광을 주제로 세계유산과 지역사회의 공존방식과 유산을 보존하면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의 논의와 관광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나눴다. 정 시장은 지난 2일 대한민국 12개

세계유산도시 대표단과 함께 크라코프 구시가지의 세계유산과 유적지들을 둘러본 후 개막식에 참석했다. 또 3일에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임시대회에 참석했고 백제역사유적지구 홍보부스 등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개최도시 크라코프 시청을 방문해 아체 마이흐로프스키 시장과 환담을 가졌다. 정 시장은 환담에서 역사문화와 자연 그리고 산업이 공존하는 두 도시의 공통점에 대해 공감하고 익산시와 크라코프 간 우호협력을 제안했다. 4일에는 차기 개최도시 투표와 이사회 투표, 시장단 워크숍 등에 참여해 공식일정을 마무리했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폴란드는 중세 문화가 잘 보존되어있는 반면 아픔의 역사도 간직한 도시지만 행정과 주민들이 협력해 관광사업이 발전할 수 있게 됐다"면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의 상생 방안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고창군로컬JOB센터 엔에치유통 고인돌휴게소 일자리 창출 힘 모은다

고창군로컬JOB센터와 엔에치유통(주) 고창고인돌휴게소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고창군로컬JOB센터는 지난 3일 고창고인돌휴게소와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인돌휴게소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민들의 소득 창출과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구인·구직자 공동 발굴과 일자리 정보제공, 취업알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 협력 등에 나서게 된다. 또 센터는 고창고인돌휴게소 상·하행선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객응대 서비스 교육도 지원한다. 현재 고창고인돌휴게소에서는 고창지역 근로자 1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희진 고창군로컬JOB센터장은 "고창군로컬JOB센터 개소 이후 1호로 고인돌휴게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며 "고인돌휴게소 상용·일용직 등 다양한 근로자를 발굴해 알선할 것이며, 관내 기업 및 단체들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정읍시, 어린메기 50만 마리 방류

정읍시 어가와 수산인 단체, 지역주민들이 지난 4일 동진강과 원평천에 메기 종자 50만 마리를 방류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메기는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전장 6cm 이상의 크기로 수산자원 증식은 물론 사라져 가는 토속 어류 보존과 자연 생태 환경 복원 차원에서 방류했다. <정읍시 제공>

## 순창군, 청년 안정적 지역 정착 돕는다

### 농업 등 3분야 30명 선발 월 30만원씩 1년간 지원

순창군이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순창군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업, 중소기업(제조업), 문화예술 등 3개 분야에 종사하면서 지역정착 의지를 가진 저소득 청년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역 기반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오는 16일까지 신청 접수를 거쳐 최종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2019년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으로 되어야 한다. 또 1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동일유형 지원사업 참여자(사업 종료 후 참여 가능)와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사이트'(tt.d.jb.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기소개서와 지원금 활용계획서 등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

군은 선정된 청년들에게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과 연계해 포인트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도박, 복권 등 사행산업이나 공공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분야를 제외한 청년들의 사회 활동 증진 및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폭 도내로 한정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에게 자기계발과 문화, 여가 등 활동에 꼭 필요한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속해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 정읍시 적정 양분관리 토양검정사업 추진

### 연간 480필지 5년간 선정 사업 추진에 활용된다.

정읍시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공동으로 적정 양분관리를 위해 토양검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재배유형(논, 밭, 과수)과 토양특성(평탄, 비평탄)을 고려해 연간 480필지, 5년간 2400필지를 선정해 추진한다. 분석항목은 토양산도(PH)와 유기물, 유효인산, 이온성양이온(칼륨, 칼슘, 마그네슘) 함량, 전기전도도(EC) 등이다. 토양분석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직불제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등 정책

농경지의 양분분포와 농경지 비옥도 변화를 알 수 있다. 구축된 자료는 땅에 알맞은 작물 선택 뿐만 아니라 친환경인증과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대표 필지 중심 토양 검정 사업을 통한 체계적 양분관리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 건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양 검정 외에도 토양중금속과 축분액비 분석을 실시해 친환경 농업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될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 문의. 010-6834-7400

